

“신심 굳게 지키며 묵묵히 실천하겠습니다”

佛道無上折言願成

“다름없는 이룰 수 있다”

얼마 전 선재는 지난 해 초 캄보디아에서 생을 회향하셨다며 떠났던 김용연 박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용연 박사는 KT&G중앙연구원 생물자원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퇴임 후 부인 송계연씨와 함께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 고아원 및 교육 시설 사업에 헌신하고자 떠났던 분입니다. 그 분은 시설관리를 중심으로 텃밭을 가꾸며 농작물 재배기법을 직원들에게 일부 전수하고 아이들에게 농작물을 돌보게 하며 자연을 가르쳤습니다. 부인 송계연씨는 아이들 식생활 문제를 책임졌습니다. 김용연 박사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피로 잘 살고 있지만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인의 당초가 심해서 잠시 귀국해있던 건강을 회복해 다시 나갈 것을 발원하는 분들입니다.

그 때에서야 자리아타행을 해나가는 보살님이 바로 저분들이구나 느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자신을 내어주며 자신의 원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 다.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부처님의 일이요, 수행의 일환입니다. 이 땅에서 한국불교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통탄하는 이도 많지만, 그런 소소한 사비들은 겉전으로 흘러 채 묵묵히 자신의 원을 실천해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세운 원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 분들이 선재에게는 부처님이요, 보살님입니다.

이슬로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선재마을의 료회 김주현 前 회장은 몸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해 병의 근원을 없애겠다는 발원을 하는 분입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결국 마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음과학원에서 수행을 통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 마음으로써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 前 회장의 발원에 그쳐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분의 발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 바로 부처님께서 열여 보이신 극락정토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지금 이미 한 걸음 다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 선재는 가슴이 뿌듯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분의 모습은 부처님이 내린 수기와도 같은 비전을 불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라고. 돈과 불교 사이에서 스스로 해법을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고백하는 우성택 삼성증권자산관리센터장에 대한 말입니다. 우성택씨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법과 수행이 어려울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준 든든한 기둥이었다는 그의

말에서 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기둥을 찾기를 바라는 열원이 느껴집니다. “불교가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는 한 일명 ‘고수’들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항상 주장하는 우성택씨는 얼마전 주식과 투자를 접목시킨 강의로 불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상사상(心想事成),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금강경> 해설서를 펴낸 정도로 속세와 불교교리를 연결시켰던 그 분에게서 불교는 결코 이 세상사와 동떨어진 고귀한 철학이자 진부한 사상이 아님을 새삼 발견합니다. 그저 부처님이 설하신 2600년 전의 상황에 때물과 옛날이야기 읽듯 했던 선재가 부끄러워집니다.

지난해는 유난히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어린이청소년불자가 불교의 미래인대 기들을 키워낼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자성했기 때문이겠지요. 불교계 종단에서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포교현장에서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은 열정으로 일해 온 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관련된 일을 해 본 분이라면 누구라도 알 그 이름, 바로 최미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2년 전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뇌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현장에서 어린이청소년포교에 몸을 내던진 분입니다. 어린이 범회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선배들이 좋아 무작정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뛰어 들었다는 최미선 국장. 그 분을 바라보며 선재는 조용히 참회합니다. 그리고 발원합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새싹들을 키워내는가에 있기에 그 중요성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선재가 직접 포교에 나설 수 없다면 후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간접히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최미선 국장이 있다면 니르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강행진 단장과 오시환 후원회장은 불교 클래식 음악을 두 어깨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클래식 음악의 불모지였습니다. 그곳에 불교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고 뛰어난 강행진 단장은 맑은 기운이 넘치는 분입니다. 10년만, 딱 10년만 열심히 하면 기만이 뒤엎는 것이라고 뛰어난 오케스트라 운영은 교계의 외면 속에 혼자만의 발버둥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연주회를 앞두고 만난 오시환 후원회장과는 만남은 불교계 사상 조유의 오케스트라 후원회도 생기게 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가슴이 찡합니다. 단지 음악의 사랑으로 불교계에 클래식 문화 포교를 하겠다고 발원의 열정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정열

자리아타행 실천하는 보살님들을 만나다

선재가 사는 이곳 지방세계에는 수 많은 보살님이 현현해 계십니다. 선재는 그 보살님들을 사실 계속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어디엔가 사는 내 이웃이지만 선재는 모르는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새아침 선재가 만난 보살님들 상단 왼쪽부터 강행진, 김주현, 송귀화, 오시환, 우성택, 최미선, 김용연과 송계연, 한진진, 한승원 등입니다



“자신의 원을 이루려 노력하는 그분들이 곧 부처님이요 바로 보살님입니다”

를 접할 때마다 선재는 고개를 숙입니다. 숙연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 없기에 더욱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산악인 송귀화씨는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내리는 걸음 자체가 기도이자 정진이라고 합니다. 송귀화씨는 산과 사람도 인연이 맞아야 하기에 정복자로서의 산악인이 아니라 산에 대한 일체감으로 교류하는 산악인이자 스스로 원력을 세운 분입니다. 그 원력 때문일까요. 59세라는 나이에 우리나라 여

성 대원으로는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반 기록을 세웠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설산 행로를 따라 10시간을 정진 하듯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올랐다는 그분의 일심원인이 선재의 신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무병무상의 경지에서 오직 관세음보살만 부를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서고자 일심으로 발원합니다.

소설가 한승원씨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마음은 무심”이라고 말합니다. 무심에 주목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 텅 빈 하늘의 마음, 영원의 시간, 우주시원의 마음을 가지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비어있음을 갈구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라고 부연합니다. 그 덕분에 한승원씨의 글 속에서 종종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85세의 고행에 소승과 대승이라는 개념의 경계를 넘어서야 부처님의 가르침, 그 근원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근본불교와 대승불교>를 펴낸 한갑진 회장(한진영성). 30여 년 전 <알기 쉬운 불교>를 펴낸 이래 10권이 넘는 책을 쓰거나 편찬해서 사찰과 신행단체에 보시고 있습니다

다. 그저 불교공부 하는 이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신심을 깊게 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말합니다. 불교공부를 하는데 나라도 상관없고, 보시를 하는데 가진 재물의 적고 많음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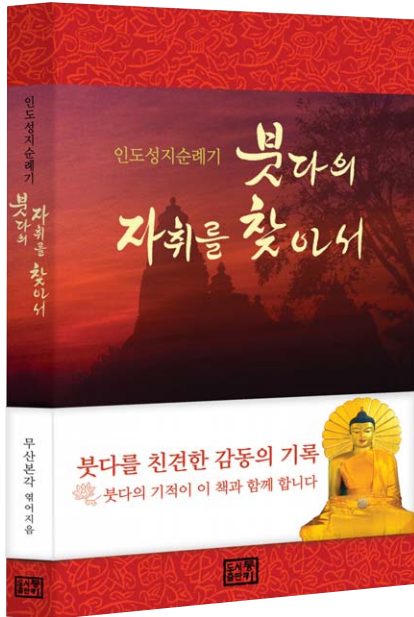
이런 작가들의 고뇌 속에서 좋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선재는 팔만사천 부처님발씀을 감히 읽어보겠다는 발원을 합니다. 수 없이 많은 양질의 불서들을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비롯해, 선각자들이 보여주는 깨달음의 조각들을 읽고 선재 역시 깨달음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선재는 이 분들에게서 불교의 미래, 한국불교의 희망을 발견하고 환희심이 넘칩니다. 주변에 이렇게 많은 보살님이 계시는 모르고 살아온 세월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새해 아침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부처님 오늘 선재는 삶 자체가 불도를 닦는 길이며, 스스로 세운 원을 실천하며 정진하는 것이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작은 알알이를 잊지 않고 부처님 말씀 따르며 부처님이 보여주시는 불도의 길을 치열하게 따르겠습니다. 강지연 기자

www.musan.co.kr (마음뉘기선원 홈페이지)

붓다의 향기를 좇아 미리 가는 인도성지순례



무산본각 엮어지음 | 13,500원

기원정사! 붓다께서 전 생애에 거쳐 가장 오랫동안 머무셨던 곳. 그리고 수다타 장자의 아름다운 보시로 시작된 곳. 이곳의 기운은 평화롭고 향기로웠으며, 우리 일행은 첫 순례지에 발을 딛자마자 감동에 젖어 모든 여정의 피로가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음을 모두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흔적을 남기신 땅을 밟았던 그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의 계획대로 전날 오후에 도착했다면 이 안개 자욱한 기원정사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풍요롭게도 가장 그곳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추어 도착한 것입니다.

질은 안개를 뚫고 가는 버스는 마치 차원을 달리하여 달리는 것처럼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운정기사는 몇 미터 앞이 보이지 않는 질은 안개 속을 뚫고 멀고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 중에 오후가 되었고 인도국경을 어렵게 넘어 거의 종일 흔들리는 버스에 몸을 맡겨 뽀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룸비니 동산에 앉아 잠시 좌선하고 눈을 떠보니, 해가 저물어 가고 붓다께서 탄생하신 자리에 있는 무우수 나무는 티벳 승려들이 매달아 놓은 형형색색의 깃발들의 움직임 사이로 거대한 자태를 드러내며 붉은 태양을 배경으로 우리가 오래된 길을 여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듯 마치 바위처럼 서 있었습니다.

인도성지순례기 붓다의 자취를 찾아서



무산본각 無山本覺 이응헌 李映憲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경북중·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주)신경 태해란 이사장과 주한미인 한국성서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그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태해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아반심경목계성(阿含心經)’이라는 말에 문득 공안(公案)을 타파하였으나, 곧 참된 경계가 아님을 깨닫고 재발심하여 육촌 공부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미타(Samitha), 교와 위 배사나(Vipassana), 발롬 함께 닦는 정통적인 붓다의 지관(智觀) 수행법을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온전히 복원하고 세계화했다. 이로써 이 시대의 수행자들은 붓다가 가르침을 편 이래 2,600여 년 만에 비로소 온전하고 참된 붓다의 수행법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그는 세속 일을 버리고 목포에 있는 무산선림(無山禪林) 마음뉘기선원에서 인연 있는 이들과 함께 수행하며 붓다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마음뉘기> (정신세계사, 1999)와 <붓다의 수행법> (유평터, 2007)를 짓고, <공짜입니다> (비보새, 2004)를 엮어지었으며, <오직 모를 뿐> (물병자리, 2000)과 <오직 할 뿐> (물병자리, 2001)을 옮겼다.